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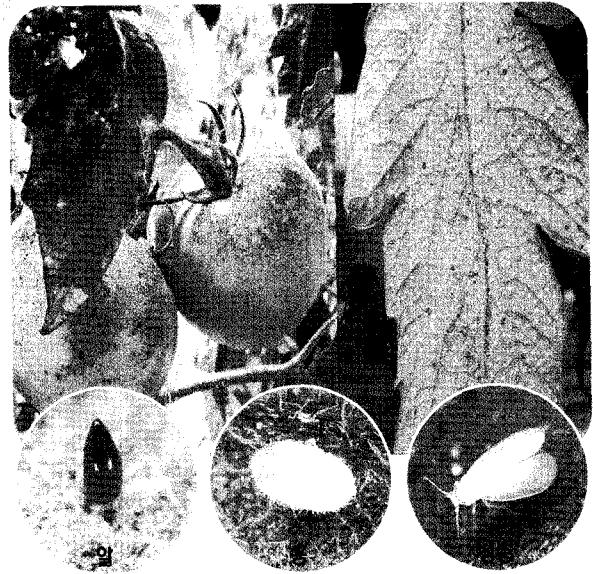
# 토마토 ①.....



■ 이관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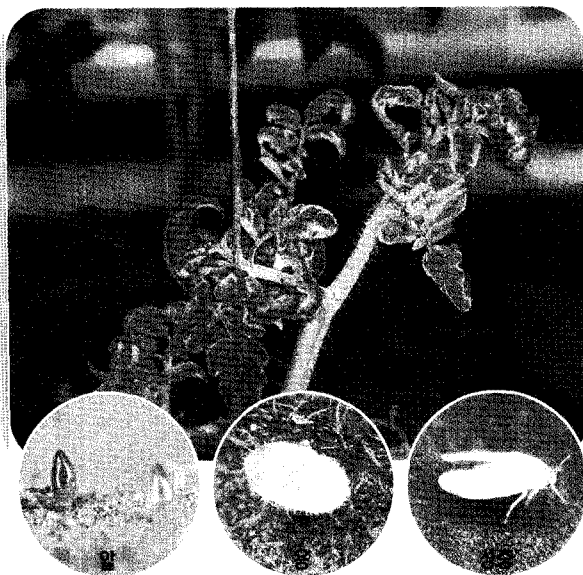
## 온실가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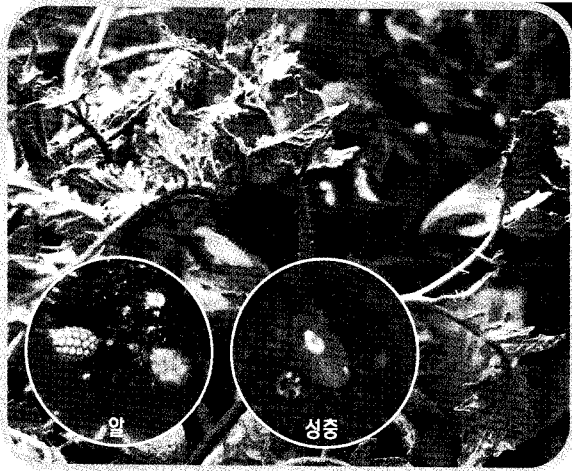
매미목 가루이과. 성충의 몸길이는 1.4 mm 정도이고 색은 옅은 황색이지만 몸 표면이 흰 왁스가루로 덮여 있어 흰색을 띤다. 알은 자루가 있는 포탄모양이고 산란직후는 옅은 황색, 부화시에는 흑색으로 변색된다. 약충과 성충 모두 진딧물 같이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데 주로 잎뒷면을 가해한다. 직접피해는 잎과 새순의 생장을 저해하거나 변색,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발생밀도가 높아지면 배설된 감로에 의해 그을음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 담배가루이

매미목 가루이과. 성충의 몸길이는 0.8 mm 정도로 온실가루이에 비해 약간 작은 편이고 날개를 바닥쪽으로 좁게 펴고 있어 위에서 볼 때 노란 몸색이 두드러져 보인다. 알은 연한 갈색으로 흑색의 온실가루이와 구별된다. 약충의 령기는 온실가루이와 같고, 온실가루이에 비해 납작하고 돌기가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담배가루이의 직·간접적 피해 역시 온실가루이와 유사하다. 작물체 상위를 선호하는 온실가루이와 달리 하위에서도 발생이 심한 편이다.





## 차면지응애

응애아강 먼지응애과. 차면지응애는 크기가 매우 작아 발견하기 어려운 해충이다. 발육단계는 알, 유충, 정지기유충, 성충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내에서 주발생시기는 저온, 다습한 조건을 보이는 3-5월이고, 5월 이후 온도가 올라가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되면 밀도는 자연적으로 떨어진다. 대부분의 기주작물에서 주로 생장점 부근의 눈과 어린잎을 선호하여 가해한다. 토마토에서의 발생은 아직 흔하지 않다.

## 토마토녹응애

응애아강 흑응애과. 1995년 충남 부여에서 처음 발견, 현재는 충남, 강원, 경북 등 국부적인 발생 양상을 보인다. 건조한 조건에서 다발생하는 토마토의 주요해충으로 잎, 줄기, 과실에 기생한다.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육안에 의한 피해가 목격되면 감염 후 상당시간이 흐른 것이다. 발생부위는 하위엽에서 시작하여 상위엽으로 진전된다. 응애에 감염된 과일은 푸른색을 잃고, 밀도가 높아져 과경 부근에서 그을음이나 녹증상이 되며, 심하면 코르크모양으로 갈라진다.



## 꽃노랑총채벌레

총채벌레목 총채벌레과. 암컷 성충의 몸길이는 1.4-1.7mm로 식물체의 꽃받침, 꽃대, 잎, 줄기 등의 조직 속에 알을 낳는다. 식물체를 주로 가해하는 발육태는 2령유충과 성충이다. 알에서 성충까지의 발육기간은 25℃에서 18일 정도이다. 기주범위가 매우 넓어 많은 작물을 가해한다. 특히 꽃을 선호하기 때문에 꽃과 열매에서 피해가 심하다. 토마토에서 직접적 피해는 덜한 편이나 꽃에 밀생한 성충을 흔하게 볼 수 있다. ♀

